

지역경제일지

9.21. ▶ 경남 실업률 역대 최저, 경제지표 지속적 상승세

- 경남의 고용률은 8월 기준 역대 최고치, 실업률은 1999년 최초 통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음
 - 8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.1%p 상승한 62.2%로 98년 1월 시도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8월 기준 최고 수치를 기록
 - 8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.4%p 하락한 1.2%로 99년 6월 시도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

- 경남 무역수지는 8월중 12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해 10월 흑자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음
 - 수출은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및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선박(49.5%), 승용차(1,039.9%), 무기류(302.5%)를 중심으로 증가

- 8월 경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5.4로 전월에 비해 1.3p 하락하였으나 5개월 연속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하여 도민들이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